

# 1945년 광복 전후 중국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과 한국

김지훈\*

1. 머리말
2. 종일전쟁시기 말기 중국국민당정부의 전후 한반도 구상
3. 광복 직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
4. 미·소군정기 국민당정부와 김구·이승만
5. 맺음말

## 1. 머리말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한국의 독립운동세력은 중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였고, 중국의 정치세력들과도 협력관계에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국민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다. 중국국민당은 여러 측면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독립을 희망하였다. 1943년 8월 중국의 지도자

\* 성균관대 연구교수

장제스(蔣介石)는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전후 한국은 응당 독립지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중국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다”<sup>1)</sup>라고 하였고, 외교부장 송즈윈(宋子文)도 1943년 8월 “중국은 일본이 패전한 뒤 동북과 대만이 중국에 귀환(歸還)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조선이 독립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전쟁에서 중국은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다”<sup>2)</sup>고 하였다.

20세기 전반의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물심 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중국국민당정부는 임시정부를 “사실상 정부로 승인”하였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고 한다.<sup>3)</sup> 그러나 국민당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도 광복군을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는 등 통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다.<sup>4)</sup> 또한 이 시기 국민정부의 한국정책은 전후 아시아의 맹주로서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중화주의와 장개석의 개인적인 야망과 소련의 팽창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연구도 있다.<sup>5)</sup> 중일전쟁시기 국민당과

- 
- 1) 蔣中正, 「韓國獨立에 對한 中國의 基本政策」(1943. 8. 5),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第1卷』,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542~543쪽.
  - 2) 宋子文, 「中國의 韓國獨立에 對한 主張」,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第1卷』,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542쪽.
  - 3) 이들 연구는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胡春惠, 『韓國獨立運動在中國』, 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1976. 국내의 독립운동사 연구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한중간의 우호관계를 서술하였다.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 해안, 2001;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중국에서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중국이라는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6;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6; 石源華, 『韓國反日獨立運動史論』,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8.
  - 4) 배경환, 「중일전쟁시기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國民政府)의 대한정책(對韓政策)」, 『역사학보』 208권, 2010, 271~298쪽.
  - 5) 구대열, 「2차 대전 중 중국의 한국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8, 1995. 5, 747~769쪽.

중국공산당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sup>6)</sup>도 이루어졌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소군정기까지의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소군정기 해방과 좌우대립, 정부 수립 등 한반도의 상황을 『중앙일보(中央日報)』와 『신보(申報)』 등 중화민국의 언론매체<sup>7)</sup>와 『신화일보(新華日報)』 등 중국공산당의 언론<sup>8)</sup>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공보(大公報)』 보도를 통해서 중국이 1948년 8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sup>9)</sup>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당시 중국국민당정부와 중국공산당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보도를 하고 있었고, 그 보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문보도만을 통해서 당시 중국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의도와 정책을 실행하려 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민당정부의 외교문서를 통해서 중화민국의 전후 한반도정책 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44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정책구상을 밝힐 수 있었다.<sup>10)</sup>

6) 김지훈, 「중일전쟁기 중국공산당의 한국인식」, 『역사학보』 194집, 2004; 김지훈, 「중일전쟁시기 해방일보의 한국인식」, 『사람』 25집, 2006; 이재령,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 -『中央日報』『新華日報』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第56輯, 2007 등이 있다.

7) 이재령, 「냉전체제 형성기(1945~1948) 중화민국의 한국인식 - 국민당 언론의 한국 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9호, 2010; 이재령, 「20세기 중반 한중관계의 이해 - 한국독립에 관한 중화외식의 이중성 -」, 『중국근현대사연구』 29, 2006, 91~116쪽.

8) 이재령, 「미·소군정기 중국공산당의 한국인식 - 1945~1946년 『新華日報』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6집, 2014.

9) 임상범,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史叢』 第67輯, 2008. 9.

10) 배경환, 「중일전쟁시기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國民政府)의 대한정책(對韓

여기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sup>11)</sup>와 『장중정총통당안자료』<sup>12)</sup> 등 국민당정부의 1945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1944년과 1945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을 살펴보고, 1945년 8월부터 1948년 초까지의 국민당정부와 김구·이승만의 관계를 검토해 보겠다.

## 2. 중일전쟁시기 말기 중국국민당정부의 전후 한반도 구상

### 가. 임시정부 승인문제

중일전쟁시기 중국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였다. 이 시기 국민당정부는 대일 항전을 위해서 일본의 북진정책의 근거지인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혁명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sup>13)</sup> 그러나 중일전쟁시기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였지만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政策), 『역사학보』 208권, 2010 271~298쪽.

- 11) 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본책 45책과 별책 6책 등 모두 51책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을 간행하였다.
- 12) 장중정총통당안에 대해서는 김영신과 진진금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신 편역,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선인, 2012, 7~17쪽(이하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陳進金, 「檔案與民國政治史的研究 -以臺灣國史館典藏檔案爲例」, 『國際中國學研究』 8, 2005 참조.
- 13) 參政院 宋淵源 등 28명, 「대만과 한국의 혁명운동 후원 및 적의 조속한 붕괴 촉진방안(제안 제27호)」(194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2008, 국사편찬위원회, 2008, 92~93쪽(이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국민당정부는 한반도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944년 9월 충칭(重慶)주재 미국대사와 영국대사의 공동요청으로 미국·영국·중국 세 나라가 한국문제를 연구 토론하며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韓國問題研究綱要草案)」을 작성하였다.<sup>14)</sup>

1944년 10월 13일 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장 우티에청(吳鐵城)은 장제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법과 향후 한국 정세 변화에 대응할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한국문제에 대해 미국·영국·소련과 행동을 통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영국·소련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지속적인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식으로 귀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임정 요인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귀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서울(漢城)에 인원을 파견하여 연락과 관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sup>15)</sup>

국민당의 우티에청이 한국문제에 대해 장제스에게 보고를 한 다음날인 1944년 10월 14일 중국 외교부도 우귀전(吳國楨) 차장(次長)을 중심으로 외교관료 9명이 참석한 한국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16)</sup> 이 회의에서는 각국 대사관과 재외공관, 도서관과 연구기관

14)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韓國問題研究綱要草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배경한, 앞의 글, 287~288쪽.

15) 吳鐵城, 「임정 승인 문제에 관해 吳鐵城이 장개석 위원장에게 올린 보고」(1944. 10.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7쪽.

16) 국사편찬위원회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권에 수록된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 번역문에는 이 회의가 1941년 10월 14일에 개최

등을 통해서 한국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제출한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정치방면에서는 문자해독 능력이 있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독립 능력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둘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원을 통해 영도 능력을 갖춘 한인 지도자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전후 한반도에 국제감독기구를 둘 것인지, 즉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고문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외교부는 한반도 문제 대처 방안을 검토하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각각의 방안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유불리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한국문제토론회에서는 3명의 외교부 관료에게 한국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 1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sup>17)</sup>

또한 토론회에서는 중국정부가 한국의 독립을 솔선하여 국제적으로 보증할 것인가 여부를 논의하였다. 이외에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경제문제는 군령부와 경제부, 재정부, 양식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sup>18)</sup>

---

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의 원문에는 10월 14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자료집 원문 17쪽). 그러나 이 한국문제토론회 자료 원문에는 논의사항에 “適當時期” 문제에 관하여”라는 부분이 있다(19쪽). ‘적당한 시기’는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시기를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카이로회담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는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 문건이 제출된 1944년 9월 이후인 10월에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0~12쪽.

17)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0~12쪽.

18)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 10. 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44년 10월 27일 장제스는 외교부에 미국과 영국대사관에서 보낸 한국문제 공동연구에 관한 강요초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교부에 미국과 영국 당국과 의견을 교환할 때 한국의 조속한 독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기존정책을 쉽게 포기한다면 한국인들이 실망을 하여 다른 외국(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제스는 전후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하에 두는 문제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면 이후 동삼성(東三省)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sup>19)</sup>

1944년 10월 31일 중국외교부는 다시 ‘한국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20)</sup>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양원쥬(楊雲竹)·쑤빙치엔(孫秉乾)·린딩핑(林定平) 등 외교부 관료가 국제감독기구 설치, 전후 즉각 한국독립, 고문제도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양원쥬(楊雲竹)는 「한국독립방안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하면서 한국 국토를 점령한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영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국독립을 승인하는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연합군이 한국 영토를 점령한 순간부터 한국에 군정을 실시해야 하며 군정기간은 국제적 협조 아래 한국에 독립기구가 성립될 때까지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중국과 미국, 영국이 일본이 투항하면 즉시 새로운 국제기구 내에 ‘대한국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국은 1명 내지 3명의 동수 위원을 위원회에 파견하며 위원회 주석 1명은 미국측 위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한국제위원회는 한국민족위원회 설립에 협조하고 민족위원회에서 주석(혹은 총통)을 선출

25, 12쪽.

19) 蔣介石, 「미·영과의 한국문제 협의에서 기존정책을 견지할 것을 지시」(1944. 10. 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0쪽.

20)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5~126쪽.

하여 일본통치시기의 총독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양원주는 민족위원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헌법을 기초하며 대표대회를 열어 정식 정부를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위원회의 존치기간은 3~5년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수립되면 즉시 해체하도록 하였다.

양원주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국이 단독으로 승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임시정부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장래 한국민족위원회 혹은 시정기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21)</sup>

양원주는 중국과 미국, 영국이 대한국제위원회라는 국제감독기구를 두어 한반도를 통치하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준비하고 헌법을 기초하며 대표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시키자는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절하게 지원하여 전후 한반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친중국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쑨빙치엔(孫秉乾)은 「한국독립방안」에서 연합군의 한반도 진주와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는 전후 중국이 최소 20~30년 동안 국가건설을 위한 평화 시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이자 동북 장악을 기도하는 소련에게는 이 지역으로 통하는 복도와 같은 곳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병풍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전후 중국의 국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국문제에 참여하는 경우 소련과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를 침략하려는 야심을 가지지 않은 미국이 한국의 독립과 건국의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쑨빙치엔은 한국에 진주한 연합군이 행정사무를 대행할 군정부를 조직하고 한국독립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체하도록 계획

21) 楊雲竹, 「한국독립방안에 관하여」(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70~173쪽.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민족해방위원회로 개조한 후 한국 광복군을 인솔하고 연합군을 따라 한국에 들어가 군정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연합군은 한국 영토를 해방시킨 뒤 카이로선언에 근거하여 한국의 독립 승인을 선포하고, 한국민족해방위원회는 동맹국이 한국 독립을 선언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개칭하도록 하였다.

쑨빙치엔의 방안에 의하면 동맹국 군대의 주된 책임은 미군이 담당하며 중국군은 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도, 미군은 함경북도·함경남도·강원도·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 영국군은 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북도에 분할하여 주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군대 주둔은 주둔군 협정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sup>22)</sup>

그는 소련이 참전할 경우 동맹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및 영토주권과 행정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보증하며 동맹국 군대를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방과 군사장비 확충은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였다.<sup>23)</sup>

소련이 참전한 경우에는 각국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주권 등을 공동으로 보증하고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철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의 방안은 한반도에서 가능하면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군사 부문에서도 미국이 주도하기를 기대하였다.

쑨빙치엔은 국력이 약한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소련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한반도에 중국과 미국, 영국이 나누어 주둔하면서 군정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해

22) 孫秉乾, 「한국독립방안」(소련이 참전하지 않은 경우), (1944.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 160~164쪽.

23) 孫秉乾, 「한국독립방안」(소련의 참전을 가정한 경우), (1944.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 164쪽.

방위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맹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이후 한국 민족해방위원회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개칭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린딩핑(林定平)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초안」에서 전후 한국에 고문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합군이 한국 영토로 진입을 개시하면 중국·미국·영국은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공동작전단체로 승인하고 임시정부를 한국민족해방위원회로 개칭하여 광복군을 인솔하고 한국 영내로 진입하며, 연합군의 지휘 아래 각종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반도에 진주한 연합군은 군정부를 조직하여 군정통치를 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연합군에 투항할 때 한국독립 조항을 정전협정 조문에 포함시키고 중국·미국·영국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 군정을 마감하면 한국민족해방위원회를 기초로 한국 국내의 인사를 흡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린딩핑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영국에서 같은 수의 정치·경제·교육·교통·산업 등 각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고문위원회의 주임위원은 1명으로 하고, 가능하면 미국이 추천한 고문 가운데 선임하며, 부주임위원 2명은 중국과 영국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서 각 1명씩 선임하고, 소련이 고문위원회에 참가하면 부주임위원 3명을 두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고문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건국에 관련된 중요 조치에 대해 고문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린딩핑은 중국과 미국, 영국이 같은 수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군대가 한국의 북부(함경남도·함경북도·평안남도·평안북도), 미국군대가 한국 중부(황해도·강원도·

경상북도·충청북도), 영국군대가 한국 남부(경상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지역 방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sup>24)</sup>

이상 3인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외교부는 한국의 독립 문제는 카이로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신속한 독립은 한국인들의 오랜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소련의 대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인솔하여 연합군을 따라 한국에 귀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5)</sup>

외교부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뒤에는 즉시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중국과 미국, 영국, 혹은 소련이 새로운 한국정부를 승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에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국제기구에서 외국인 고문을 추천하여 한국정부의 사업에 참가하여 협조하는 것이 국제공동관리(신탁통치)라는 자극적인 형식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sup>26)</sup>

중국외교부는 린딩핑이 한국 경내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켜 영토 안전을 책임지자고 한 것에 대해서 1894년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1904년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과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결국 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고려하여 외국군대 주둔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외교부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육군을 파견하여 한국에 주둔시키고 미국이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여 한국

24) 林定平,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초안」(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53~159쪽.

25)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73~174쪽.

26)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74쪽.

주변을 감시한다면 한국을 방위하기에 충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27)</sup>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외교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기지로 변하여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변경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천연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한국이 독립자주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독립국가로 자리할 때 비로소 일본의 권토중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한국문제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28)</sup>

10월 31일 회의에서는 앞서 보고에서 논의된 국제위원회와 민족위원회의 권한, 군정부의 조직과 권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권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독립과 국토의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미국·영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임시정부를 강화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강화와 군사적 실력 증대, 임시정부가 세계 각지의 한국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sup>29)</sup>

1944년 11월 15일 장제스는 「한국문제연구강요초안」에 대한 논의 결과 중국이 체결할 방안 5개항과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27)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 174~175쪽.

28) 「孫秉乾·林定平·楊雲竹의 의견과 관련한 외교부 문건」(1944.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 175쪽.

29)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1944.10.1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5~126쪽.

최후의 선에 관한 내정방침 6개항을 승인하였다.<sup>30)</sup>

우리가 제출할 방안 :

- (一) 盟軍의 군사점령기간 한국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이 기간 민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한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한국 '임시정권'의 존재를 승인하여 한국독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중·미·영 삼국은 위에 언급한 '임시정권'의 승인문제에 관해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만일 소련이 협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가를 환영한다.
- (二) 대일군사작전이 종료된 뒤 한국의 치안유지를 위해 맹군이 한국 국내의 중요거점을 점령하도록 한다. 점령기간은 한국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할 때까지로 한다.
- (三) 한국정부를 정식승인한 뒤에는 중·미·영 삼국이 한국정부의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중·미·영 삼국은 한국정부를 정식승인하기 전에 상호 충분한 협의를 갖고 보조를 일치시킨다. 만일 소련이 협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가를 환영한다.
- (四) 장래 국제평화조직이 성립되면 즉각 한국이 이 조직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이 국제평화조직의 회원국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의 독립지위 또한 국제적 보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五) 국제평화조직에 가입한 뒤 한국의 독립문제는 진일보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평화조직은 한국의 독립을 보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선에 관한 내정방침 :

- (一) 위 방안의 제1항
- (二) 위 방안의 제2항
- (三) 한국정부를 정식승인한 뒤 마땅히 중·미·영 삼국이 동시에 임시국제협조제도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중·미·영 삼국은 한국정부 정식승인문제를 사전에 상호 협의하고 일치된 행동을 취한다. 만일 소련이 협의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가

30) 蔣介石,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한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장개석의 의견」(1944. 11.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3쪽.

를 환영한다.

(四) 위 방안의 제4항

(五) 국제협조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미·영 삼국을 비롯한 관계국의 상의를 거쳐 집행을 책임진다(우리의 경우 우선 외교부에서 방법초안을 마련하여 결재를 받도록 한다).

(六) 국제협조제도는 참가국 다수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31)</sup>

1944년 하반기 중국국민당정부는 일본의 패전이 다가오면서 전후 한반도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동맹국과 상호 협의를 하여 일치된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승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정부는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여 한국에 친중정부를 구성하고 가능한 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하였다. 중국외교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초점은 한반도가 일본과 소련 등의 국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친중적인 독립정부가 구성되는 것이었다.

국민당정부의 외교관료들은 미국·영국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독립정부를 구성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당정부는 미국·영국 등과 함께 한반도에 중국군을 파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확대 개편하여 신생 정부의 기초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소련군이 참전하고 일본이 항복하기 전날인 8월 14일에 국민당정부와 소련이 중소조약을 체결하면서 전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현실화하였다.

31) 「국방최고위원회의 보고서」(1944. 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23쪽.

### 3. 광복 직후 국민당정부의 한반도 구상

1945년 8월 21일 주중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Coady Wedemeyer)는 장제스에게 미군 제24군이 주한미군 총지휘부로 지명되었다는 비망록을 전달하였다. 웨드마이어는 장제스에게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받은 전문에 따르면 미군 제24군이 주한미군 총지휘부로 지명되어 북위 38도선 이남의 접수와 일본군의 투항 사무를 관장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32)</sup>

1945년 9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중국 외교부의 린딩핑(林定平)을 만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원들이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린딩핑(林定平)은 중국정부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돕도록 관계 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귀국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린딩핑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33)</sup>

1945년 9월 24일 장제스(蔣介石)는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얻고 싶어하였다. 장제스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협의한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공동으로 한국에 훈정정부(訓政政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장제스의 기본 입장은 충칭(重慶)에 있던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초로 조직을 확대하여 정식정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32) 웨드마이어, 『魏德邁上蔣中正美軍第二十四軍總指揮已被任爲駐朝鮮軍總指揮』(1945. 8. 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쪽.

33) 林定平, 『중국외교부를 방문한 조소앙 및 이정호와의 담화 요점』(1945. 9.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68쪽.

장제스는 기존의 정부를 제쳐두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경우 공산당에 의해 조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새로 구성될 한국정부의 기초로 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 장제스는 워싱턴 주재 주미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 1900~1978)에게 미국정부의 대한 정책을 조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sup>34)</sup>

중국국민당 정부는 충칭(重慶)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래에 조직될 한국 정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 중화민국 주미대사였던 웨이다오밍(魏道明 1900~1978)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회담에서도 표명되었다. 웨이다오밍은 임시정부가 미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 국무장관 애치슨도 한국의 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인자격으로 행정사무에 참여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sup>35)</sup>

이 시기 국민당정부의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9월 26일 오전 9시 군사위원회는 국민정부의 관련 부처를 소집하여 한국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 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귀국을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한국 내에 친중국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광복군이 한국국방군의 모태로 성장시킬 대책을 논의하였다.<sup>36)</sup>

이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문제 계획대강」은 다음과 같다.

- 
- 34) 蔣介石, 「蔣中正電魏道明美國對朝鮮之政策究竟如何請杜魯門總統明示方針及四國協助組織訓正政府不如以其在重慶之原有政府爲基礎而予以擴充爲妥」(1945. 9. 24),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249~250쪽.  
 35) 魏道明, 「魏道明電蔣中正關於美對朝鮮方針今訪代理國務卿愛琴遜詳談美現時步驟擬先設中美英蘇四國託管制其原則前經與宋子文商談并經英蘇贊同現正草擬辦法」(1945. 9. 2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241~242쪽.  
 36) 軍事委員會, 「한국문제토론회에 출석을 요청」(1945. 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7쪽.

- 一. 대한정책을 새로 검토하고 방침을 정하여 공작계획을 확정한다.
- 二. 한국의 국방군 건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한국 국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현재의 한국광복군을 기본병력으로 삼고 일본군에서 복무하다 투항한 한국 국적 사병을 위주로 편성한다).
- 三. 고문단(혹은 군사·정치·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를 포함한 군사대표단)을 조직하여 한국에 파견한다. 이에 앞서 군사위원회에서 특파원을 서울(漢城)에 파견하여 공작거점을 확보하도록 한다.
- 四. 한국과 조차(租借)법안을 성립하고, 반조차법안의 실시를 요구한다.
- 五. 한국이 장기적으로 軍·政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아국의 중요 군·정 교육기관에 한인 학생의 특별입학을 허용한다.
- 六. 한국이 건군의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베이핑(北平)·텐진(天津) 일대 혹은 한국 내지에 군관학교를 설립하는데 협조한다.
- 七.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 八. 기타<sup>37)</sup>

군사위원회에서 개최한 이 회의는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문제를 논의하였다. 군사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주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신속하게 대한(對韓)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상황을 파악하였다.

군사위원회는 한국국방군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국 경내에 3~5개 사단을 편성하여 소련군과 산시(陝西) 북부의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한인 병력에 필적할 만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대는 중국에 파견된 일본군 내 한인 사병들을 1개월 정도 훈련시킨 후 일본군으로부터 몰수한 무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들 부대의 지휘관은 한국광복군 간부들을 기간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광복군을 개편하고 베이핑(北平), 텐진(天津), 난징(南京), 상하이(上海)와 연해 지역에 집중시켜 소련군 점령지역을 피해 해상으로 한국에 진입시키도록 하였다.

37) 軍事委員會, 「한국문제 계획대강」(1945. 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8쪽.

군사위원회는 한국의 우수한 청년유학생을 받아들여 한국 내 친중국정권을 세우고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군사위원회는 한국이 건군을 위한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베이핑(北平), 텐진(天津) 일대 혹은 한국에 군관학교를 설립하는데 협조해야 하고 군관학교 설립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사위원회에서 특파원을 서울(漢城)에 파견하여 공작거점을 확보하고, 고문단 혹은 군사·정치·경제 등 방면의 전문가를 포함한 군사대표단을 조직하여 한국에 파견하자고 하였다.

경제부분에서는 한국과 조차법안을 체결하여 한국을 원조하고 이후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 상환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요구사항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인 교포를 위무할 수 있도록 각 수복구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투항한 한인 사병들을 판별하는데 한국광복군이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광복군이 중국군의 수송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복군에 수송차량과 유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광복군이 요청한 권총과 실탄 지급 요구는 거절하였지만 광복군에 5천만 위안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교민위무를 위해 요청한 5백만 위안을 차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38)</sup>

그러나 이 군사위원회의 「한국문제 계획대강」은 너무 군사문제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차법안을 체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39)</sup> 이 군사위원회 회의는 각 기관에서 대강의

38) 군사위원회, 「한국문제 및 월남 당파 지도문제 협의 토론회 강목 및 군사위원회 의견」(1945. 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2~146쪽.

39) 于望德, 「한국문제토론회 참가 경과보고」(1945. 9. 2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내용에 대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1945년 11월 7일 장제스는 행정원의 송즈윈(宋子文)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각 당파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혁명 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키고 중한의 우호관계를 건립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sup>40)</sup> 장개석은 한국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가 필요하고 광복군에 군대와 정부 인원으로 고문단을 파견하며, 서울에 군사연락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송즈윈에게 지시하였다.<sup>41)</sup>

샤오위린(邵毓麟)은 장제스에게 한국과 중국이 순망치한의 관계이며 한국의 안위가 중국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 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이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한국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국문제의 처리원칙」을 제시하였다.

- (一) 미국과 소련의 세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남북한의 대립을 해소시키고 통일을 촉진한다.
- (二) 한국 내 친중국세력에 대한 지원은 일관되게 한국독립당을 중심대상으로 하며, 한국정치 세력의 단결과 합작을 촉진시킨다.
- (三)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고 국내외 한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법민주정부가 한국에 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발전을 촉진시킨다.
- (四) 장래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한 뒤 자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건군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25, 128쪽.

40) 蔣介石, 「한국문제 처리방안」,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4쪽.

41) 蔣介石, 「군사위원회, 군사위원회, 韓國문제의 방안 강구 電文」(1945. 11.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5쪽.

- (五) 장래 완전독립을 이루었을 때 행정인재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이 행정간부를 훈련시키는데 적극 협조한다.
- (六)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카이로 선언의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한 기준이 확정될 수 있도록 미·소·영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장래 열릴 평화회의 혹은 연합국회의에서 한국독립의 명확한 시간표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향후 미군과 소련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킬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샤오위린은 한국 내 친중국세력인 한국독립당을 지원하고 합법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한국의 건군과 행정간부를 훈련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미국, 소련, 영국 등과 협의를 하여 유엔에서 한국독립의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미군과 소련군을 한반도에서 철군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샤오위린은 중국정부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로 중국 외교부가 미·소 당국과 접촉하여 김구의 정치조직을 지지하거나 비공식적인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중국 내에 남아있는 광복군을 미국과 협의하여 한국으로 귀환시켜 지방보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물들과 한인 교포들을 귀국시켜 친중국세력을 증강시켜야 하고 한인 청년을 선발하여 중앙정치학교 등에 유학시켜 한국의 군대와 정부, 사회의 중견 인물로 양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에 파견하는 주한국대표단은 한국 내 친중국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에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3)</sup>

42) 邵毓麟, 「한국문제의 대책」(1945.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0쪽.

43) 邵毓麟, 「한국문제의 대책」(1945. 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40쪽.

샤오위린은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없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군하고 한국이 신속하게 독립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친중국 정치세력으로 한독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의 군대건설과 행정을 담당할 인재를 중국에 유학시키려 하였다.

장제스는 샤오위린의 제안을 보고 1945년 12월 5일 한국문제에 대해 우티에청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미·소 두 나라 군대가 각기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주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국제정책은 응당 미국과 긴밀한 합작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한국에 진주하고 있는 미·소 군사당국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외교적으로 초월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미·소 두 나라 관계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한국 내 친중국 세력을 육성하고, 한국 내 각 파벌의 단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 가운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동북·화중·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3백만 한교들을 확실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후 한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한정책은 필히 내정과 외교를 통일적으로 운용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샤오위린(邵曉麟) 동지를 중장 계급의 군사위원회위원장 대표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원 몇 명과 함께 漢城에 주재하게 될 소 대표는 주한 미·소군과 연계를 맺는 한편으로 한국 실정을 관찰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복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장래 우리의 대한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교 관리 부분은 이미 외교부를 통해 미·소 두 나라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소육린 동지가 한교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할 기구의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소 동지의 의견에 의하면 이 기구는 한교와 관련한 여러 사무를 담당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적성 한교의 재산을 처리해서 한국광복군을 확대하고 빈궁한 한교의

전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sup>44)</sup>

장제스는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한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진주하고 있는 미·소 군사당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두 나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 내 친중국 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북과 화중 대만 지역의 3백만 한인들을 국민당정부쪽으로 끌어들이 필요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샤오위린을 중장 계급의 군사위원회 대표로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중국내 한인 교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성(敵性) 한인 교포들의 재산을 처리해서 한국광복군을 확대하고 빈곤한 한인들의 귀국을 돕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유관 기관의 정기적인 모임은 중앙비서처에서 주관하기로 하였고, 장제스의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광복군에 고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였다. 주한연락고문으로는 샤오위린(邵毓麟)이 지목되었지만<sup>45)</sup>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부임하지는 못하였다.

## 4. 미·소군정기 국민당정부와 김구·이승만

### 가. 국민당정부와 임시정부

1945년 8월 광복후 한반도에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는 긴박한

44) 蔣介石,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국민정부의 전문」(1945.1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8~139쪽.

45) 軍事委員會, 「한국문제 처리방안 관련 公函」(1945. 12. 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136~137쪽.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는 귀국을 서두르고 있었다.<sup>46)</sup> 김구는 국민당 정부에 귀국을 위한 1~2대의 비행기 제공과 3억 위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장제스가 비준하지 않았다. 9월 21일에 김구는 국민당 비서장 우티에청(吳鐵城)에게 다시 5천만 위안의 차관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sup>47)</sup>

1945년 9월 21일 우티에청(吳鐵城)은 장제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가 5천만 위안의 차관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가 귀국을 준비하고 있고, 각지에 간부를 파견하여 투항한 한인 청년들을 조직하려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5천만 위안을 차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고하였다. 우티에청은 김구 주석이 요청한 5천만 위안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48)</sup>

1945년 9월 26일 김구는 장제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원과 한국인의 귀국에 편의를 제공하고 3억 위안의 차관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김구는 이 편지에서 한국 국내에 각종 당파와 단체가 난립하여 혼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신속하게 귀국하려 하며 이를 위해 항공편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김구는 중국이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임시정부를 비정식의 혁명적 과도정권으로 묵인하고 귀국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귀국 후에 임시정부가 동맹국의 협조 아래 각 분야의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확대 조직한 뒤 민선의 정식정부를 설립하려 한다고 하였다.

김구는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이 영구적으로 합작할 필요가 있고

46) 『韓臨時政府將返國金九發表當前政策』(1945.9.8), 『大公報』, 重慶.

47)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1945.9.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324쪽.

48)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1945.9.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324쪽.

항구적인 우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대표를 선정하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의 협력과 일본군으로 끌려온 한인 사병을 한국광복군에 넘겨주고, 충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귀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구는 임시정부의 업무 처리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므로 중국정부에서 3억 위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sup>49)</sup>

1945년 10월 15일 우티에청은 장제스에게 임시정부가 귀국하면서 대형수송기와 비용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주석이 우티에청에게 임시정부의 부장급 이상 인원과 비서, 경호원 등 29명과 중요 공문서를 담은 상자 10여 개와 휴대품 등을 운송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1~2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의 귀국과 귀국 후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5천만 위안과 50만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귀국 후 중국국민당과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송신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0월 19일 장제스는 항공위원회를 통해 비행기 1대를 제공하고 5천만 위안과 20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비준하였다.<sup>50)</sup> 이외에 중국은 무전기와 기술자 3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sup>51)</sup> 10월 20일 장제스는 김구 주석에게 1억 위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중앙은행 업무국을 통해서 우선 5,400만 위안(20만 달러)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sup>52)</sup>

49) 金九, 「金九函蔣中正請求徵得美國同義運在渝同人僑民返國及撥借三萬萬元」(1945. 9. 2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4~325쪽.

50)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請照准韓方所請撥派大運輸機運送人員公文核撥借款」(1945. 10. 15),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4~326쪽.

51) 金九, 「無電機支給과 技術者派遣通報에 對한 回信」(1945.11.03), 추헌수, 『資料 韓國獨立運動 第1卷』,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469쪽.

52)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擬請照准在渝韓國要員早日返國所請借款五千萬元」

중국은 미국에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맥아더장군은 한국인사들의 한국입국을 허용하였고, 중국전구의 미군총사령부에서도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국에 협조하겠다고 통보하였다.<sup>53)</sup>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 등 일행 29명은 11월 5일 충칭(重慶)을 출발하여 상하이로 거쳐서 귀국하였다.

임시정부는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정치자금을 수령하였다.<sup>54)</sup>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할 당시 장제스가 김구에게 제공한 20만 달러는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상당한 거액이었다.

임시정부는 환국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정부와 교섭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을 설립하였다. 1945년 11월 1일 박찬익(朴贊翊)<sup>55)</sup>을 단장으로, 민필호(閔弼鎬), 이청천(李青天)이 대표를 담당하였고, 비서처(비서처장 金恩忠), 교무처(교무처장 朴永堯), 군무처(군무처장 이청천), 총무처(총무처장 閔泳玖) 등의 조직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교무처와 군무처가 각각 교포 업무와 광복군 확군을 책임지고 있었다.<sup>56)</sup>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임시정부의 잔무처리와 중국내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귀국 등 제반 문제를 중국정부와 협의

(1945. 9. 2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2~324쪽.

53) 王世杰, 「金九電蔣中正感謝中國相助返國并請邵毓麟同行」(1945. 11. 8),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27쪽.

5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2월에 김연수로부터 5백만 원, 박홍식으로부터 2백만 원 그 외 현금 등으로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친일파였던 민대식(閔大植), 민규식(閔奎植), 민병도(閔丙燾) 3형제에게서 건국자금 3백만 원을 제공받았다. 12월 16일 김성수의 경성방직과 삼양사(三養社)는 각각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임시정부 재무부장 조완구에게 기증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국내에서 임시정부에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정병준, 「대한경제보국회(大韓經濟輔國會)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현실』 33, 1999.9, 285쪽.

55) 중국에서 박찬익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성주현, 「남과 박찬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사학연구』 94, 2010. 3, 117~146쪽.

56) 김정인, 「해방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대미관계 임정\_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4, 1997.6, 127쪽.

하여 처리하였다.<sup>57)</sup>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은 중국 국민당정부를 상대하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귀국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에 매달 5백만 위안의 보조비를 지급하였다. 국민당정부의 보조비는 참모본부에서 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처를 통해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에 전달되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좌우연합의 틀을 유지하고 있던 임시정부세력은 노선 갈등 속에서 김원봉 등 탈퇴하면서 점차 김구의 한독당 계열로 축소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도 1947년 1월 한국 주화대표단으로 개칭되었다.<sup>58)</sup>

그러나 국민당 비서처는 “한국의 정국이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땅히 기정 방침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sup>59)</sup>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참모총장 천청(陳誠)은 장제스에게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보조비를 1천만 위안으로 증액할 것을 건의하여 증액을 허락받고 1947년 1월부터 매월 1천만 위안을 지급하였다.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국내에 반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화대표단의 박찬익(濮純) 등을 통해서 김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장제스가 임시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미화 20만 달러는 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여러 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철차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었다.<sup>60)</sup> 김구는 이 돈을 휴대하고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뉴욕의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하고

57) 『韓臨時政府將返國』(1945. 10. 20), 『大公報』, 重慶.

58) 김정인, 「해방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중·대미관계 임정\_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4, 1997. 6, 147쪽.

59) 陳誠, 「眞性呈蔣中正可否將韓國臨時政府補助費每月增爲一千萬元」(1947. 2. 2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5~336쪽.

60)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美元仍暫存我大使館俟匯兌通後再匯交韓國臨時政府」(1946. 3. 1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1쪽.

있다가 한국으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미국과 한국 사이에 송금이 불가능하였다.<sup>61)</sup> 당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송금이 불가능한데다가 미국 측에서 수령할 수 있는 외환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구는 미군정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었고<sup>62)</sup> 미군정의 협조없이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20만 달러를 반입할 수도 없었다.<sup>63)</sup>

김구는 장제스가 제공한 자금 등 임시정부가 모금한 자금을 이승만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1946년 1월 김구는 이승만에게 임시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였고 이승만이 경제보국회를 통해 1백만원을 알선해 주었다고 한다.<sup>64)</sup>

이 시기 미국의 중국대사관에 보관되어 있던 20만 달러를 김구가 이승만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sup>65)</sup> 이후 이승만은 국민당정부에 이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1946년 2월 15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편지를 보내 주미 중국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에게 지시하여 미화 20만 달러를 자신 명의로 미국안전신탁공사(American Security and Trust Company)에 예치하고 자신의 대리인 임병직(林炳稷) 대령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하지 장군이 서울에서 거행된

61) 吳鼎昌, 『中執委秘書處呈』(1947. 2. 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3쪽.

62) 정병준, 『1945~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李承晩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000. 6, 196쪽.

63) 이승만은 미선계 학교와 선교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였지만 미군정 당국에서 이승만에 대한 횡령혐의 조사와 체포시도를 중단시켰다. 브루스 커밍스 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하, 청사, 서울, 1986, 52쪽.

64) 정병준, 『대한경제보국회(大韓經濟輔國會)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 33, 1999. 9, 285쪽.

65) 당시 장제스가 김구의 귀국시 제공한 자금을 이승만이 ‘대미 외교’와 독립운동에 필요하다며 가져갔다는 소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정병준, 『1945~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李承晩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000. 6, 215쪽.

장엄한 의식에서 남한민주동맹을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자신이 이 조직의 주석이고 김규식과 김구 두 사람이 부주석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sup>66)</sup>

미화 20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이승만의 요청에 대해 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장 우티에청은 임시정부 주화대표단과 상의한 결과 이 돈을 당분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외화 송금이 가능하게 되면 한국임시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sup>67)</sup>

1946년 연말에도 이승만은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의 천즈마이(陳之邁) 참사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 노력하였지만 미국 외교당국이 삼상회의 결의를 준수하겠다고 고집하여 진전이 없고, 파괴를 일삼는 적색분자들이 날뛰고 있으며 외국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편지에서 이승만은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예치되어 있는 20만 달러를 즉시 자신이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sup>68)</sup>

김구는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의 박찬익(濮純)을 통해서 국민당정부와 교섭을 하여 이 돈을 잠시 중국은행(中國銀行)에 예치하도록 하였지만 최종적인 처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티에청은 장제스에게 애초에 이 돈이 김구주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구 본인의 수령인 변경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이승만이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하였다.<sup>69)</sup>

우티에청이 장제스에게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김구가

66) 李承晩, 「李承晩電蔣中正請以鄙人名義存入美元霍奇已承認南韓民主同盟」(1946. 2. 15),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0~331쪽.

67) 吳鐵城, 「吳鐵城呈蔣中正美元仍暫存我大使館俟匯兌通後再匯交韓國臨時政府」(1946. 3. 1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1쪽.

68) 陶希聖, 「陶希聖呈蔣中正轉呈李承晩致陳之邁參祀函」(1946. 12. 30),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3쪽.

69) 吳鼎昌, 「中執委秘書處呈」(1947. 2. 6),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3쪽.

국민당정부에 2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지급하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구는 이승만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편지를 장제스에게 보냈지만 2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지급해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다.

1947년 6월 1일 김구는 한국주재 중국총영사 류위완(劉馭萬)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한국 주화대표단 박찬익(濮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달러를 중국은행에 예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우티에청은 1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sup>70)</sup>

#### 나. 국민당정부와 이승만

이승만은 1946년 말 방미 이후 귀국 길에 직접 중국을 방문하려 하였다. 1947년 1월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귀국하는 길에 난징(南京)에 들러 만나고 싶다는 전보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제스는 미국 주재 중국대사 구웨이준(顧維鈞)을 통해 예방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sup>71)</sup> 이에 따라 구웨이준은 이승만과 장기영(張基永), 김동성(金東成), 미국인 프라이어(MRS. G. Frye) 등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였다.<sup>72)</sup>

1947년 2월 22일 김구는 장제스에게 이승만이 난징을 방문하여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하니 협조를 제공해 달라는 전문을 보냈다.<sup>73)</sup>

1947년 4월 7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전문을 보내 노스웨스트

70) 吳鐵城, 「吳鐵城電蔣中正已函中國銀行撥付十萬美元給濮純餘十萬暫存」(1947. 6. 1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8~349쪽.

71) 李承晚, 「李承晚電蔣中正二月上旬將自美返朝鮮擬經南京晉謁商談」(1947. 1),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4~335쪽.

72) 顧維鈞, 「顧維鈞電外交早韓李承晚擬於本月下旬飛華擬發給來華簽證」(1947. 2. 1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4~335쪽.

73) 金九, 「金九電蔣中正李承晚將至南京商談朝鮮獨立問題」(1947. 2. 2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6쪽.

편으로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 도착하여 중국에 이틀간 머물다 도쿄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장제스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sup>74)</sup>

한편 이승만의 중국방문을 둘러싸고 중국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1947년 3월 20일 국민정부 문관장 우딩창(吳鼎昌)은 미국에 주재할 때 이승만과 자주 접촉하였던 외교부 아동사(亞東司)의 양원쥬(楊雲竹) 사장(司長)이 작성한 이승만 관련 첨부 문건을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

양원쥬가 작성한 첨부 문건은 이승만이 미국과 한국에서 한 활동과 미국 조야의 여론, 임시정부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보고는 이승만에 대해 한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임시정부의 주미대표로 활동한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고 소련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의 한인단체 가운데 3개 단체는 이승만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승만을 반대하는 연합위원회의 회원이 천여 명으로 이승만이 창립한 동지회보다 세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미국 관방은 이승만이 고령(72~3세)인데다 종종 반미언동을 일삼는 관계로 이승만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무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미국 관방은 이승만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며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는 이승만과 임시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승만이 한국임시정부의 김구와 돈독한 관계였지만 미국에서 모금활동이 실통치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1945년 임시정부가 미주의 한인 조직인

74) 李承晩, 「李承晩電蔣中正將於四月十一日抵滬擬留華兩日屆時請賜延見」(1947. 4. 7),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1쪽.

연합위위원회와의 연계를 맺고자 할 때 이승만이 임시정부가 작성한 명단에 불만을 품고 미주 한인 사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이승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탁통치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김성수(한국의 자산가, 친일파)가 주도하는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는 이승만이 각 당파와 연합하여 민주평의회를 조직하고 자신이 주석을 맡았다고 하였다.<sup>75)</sup>

1947년 3월 31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군사참모위원회 중국정부대표 허잉친(何應欽)은 이승만이 고집이 세서 미국의 한인들에게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으므로 너무 융성한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76)</sup>

1947년 4월 2일 주미 중국대사 구웨이쥘(顧維鈞)도 미국정부와 주한 미군 당국이 모두 이승만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승만은 반미언론을 발표하는데다 한인들을 선동하여 미군철수와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정권을 잡더라도 미국이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구웨이쥘은 미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승만에 대한 예우는 적절한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77)</sup>

1947년 4월 7일 우딩창도 미국 관방이 이승만이 반미 발언을 하여 이승만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우딩창은 미국

75) 吳鼎昌, 「吳鼎昌呈蔣中正韓國新進黨請重開美蘇委員會及李承晚資料」(1947. 3. 20),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9~341쪽.

76)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쪽.

77)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쪽.

관방이 이승만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으며 이씨가 충분한 호소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78)</sup>

그러나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대리소장이고 군사위원회 주한대표였던 샤오위린(邵毓麟)은 1947년 4월 3일 이승만과 김구는 한국독립운동계의 지도자로 돈독한 우의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승만이 중국을 방문하여 남한 임시 정부 수립에 앞서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승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샤오위린은 이승만이 중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79)</sup>

1947년 4월 11일 샤오위린(邵毓麟)은 난징에서 이승만을 만나고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은 장제스가 아시아의 민족 영수로 모든 한국인이 존경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과 김구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7월에 임시정부가 조직되면 8월 경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남한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행정은 한인이 주관하고 군정의 실권은 미군이 비밀리에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한 6억 달러의 차관이 미국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샤오위린은 9일 미국 워싱턴발로 한국에 대한 차관 공여를 고려한 사실이 없다고 상하이의 언론들이 보도하였다는 점을 덧붙였다.<sup>80)</sup>

1947년 4월 12일 외교부장 왕스제(王世杰)는 이승만이 연로하지만 최고의 영도력을 가진 유일한 원로이므로 중시해야 한다고 장제스

78)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 (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쪽.

79)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 (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2~343쪽.

80) 俞濟時, 「俞濟時呈蔣中正彙報顧維鈞等呈供鈞座召見韓國李承晚時參考資料」, (1947. 4. 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3쪽.

에게 건의하였다. 왕스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 되어야만 남한정부가 독자적인 무력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북한공산당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이승만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새로운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이승만의 주장에 원칙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왕스제는 시기를 봐서 미국과 영국 등에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81)</sup>

1947년 4월 이승만 방중 당시 이승만에 대한 중국 국민당정부 인사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었다. 대체로 미국에서 이승만을 접하였거나 미국무부의 이승만에 대한 의견을 알고 있던 인사들은 이승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이승만이 귀국하여 한국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승만을 접촉하였던 인사들은 한국에서 이승만이 가진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7년 2월 이승만은 영국이 한국에 주한사절을 파견하였다면서 중국도 한국에 대표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국민당정부는 총영사로 류위완(劉馭萬)을 임명하였다.<sup>82)</sup>

1947년 4월 24일 중국 국방부 보밀국(保密局)은 장제스에게 한국독립당의 김구와 이승만의 정치모략이 성공한 내막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의하면 김구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고 이승만은 미국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정부가 이승만을 돕고 한국 부흥계획에 원조를 약속한 것은 1947년 봄에 김구가 독립

81) 王世杰, 『王世杰函蔣中正似可原則同意李承晚之主張望其力求與美保持協調』, (1947. 4. 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4~345쪽.

82) 王世杰, 『王世杰函蔣中正已遴派劉馭萬爲總領事駐漢城辦理保僑及維護權益』, (1947. 2. 27),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38쪽.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것에 미국이 자극받은 결과라고 보고하였다.<sup>83)</sup>

1947년 4월 29일 보밀국은 장제스에게 이승만이 한국으로 귀국 하였을 때 약 이십만의 환영인파가 운집하였는데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 때문<sup>84)</sup>이라고 두 사람의 협력 관계를 보고하였다.

보밀국의 이러한 보고는 당시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 밀접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정부도 한국의 정치세력 가운데 이승만을 점차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7년 9월 3일 왕스제는 국제연합 제2차 대회에 중국 측 수석 대표로 출국하기에 앞서 장제스에게 한국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왕스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남북한이 각기 선거를 통해 민선정부를 구성하고 두 민선정부가 통일정부 수립을 협의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련이 이 방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남북한이 민선정부 수립을 협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우선 남한에 민선정부를 수립하여 자위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원래 중국정부가 미국에 표시한 주장이라고 하였다. 왕스제는 미국주재 중국대사 구웨이진에게도 이 방안을 지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sup>85)</sup>

1947년 10월 10일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환대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승만은 이 편지에서 장제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승만은 장제스에게 편지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83) 保密局, 「保密局呈蔣中正韓國獨立黨領袖金九與李承晚政治謀略成功內情」, (1947. 4. 24),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6~347쪽.

84) 保密局, 「保密局呈蔣中正中共在東北誘惑韓僑參加組織李承晚返漢城民衆歡迎」, (1947. 4. 2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48쪽.

85) 王世杰, 「王世杰電蔣中正美主張南北韓各先成立民選政府再依義成立統一政府」, (1947. 9. 3),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55쪽.

주장을 담은 비망록도 함께 보냈다. 이 비망록은 하지가 남한만의 선거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 친공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연합의 중국대표단에게 즉각 남한에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남한만이라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하고 만일 한국(朝鮮)이 미국의 위성국이 되어버린다면 이는 중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만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제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승만은 장제스가 약속한 금액을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의 비서가 워싱턴의 미국안전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임병직 대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sup>86)</sup>

장제스는 이승만의 비망록에 대해서 중국의 주장과 의도하는 모든 것은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내용의 밀전을 주한성 총영사관에 보내 이를 이승만에게 구두로 전하도록 하였다.<sup>87)</sup> 이승만의 송금 요청에 대해서 국민당정부는 우티에칭(吳鐵城) 비서장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국제연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던 중국의 주서울 총영사 류위완(劉馭萬)에게 전달하였다.<sup>88)</sup>

86) 李承晩, 「李承晩函蔣中正感謝接待正於南漢推行選舉運動及急需經費」(1947. 10. 10),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56~359쪽.

87) 王世杰, 「王世杰呈蔣中正資助李承晩及對我在聯合國商討朝鮮問題經辦情形」(1947. 12. 19),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62쪽.

88) 국민당정부는 이승만의 자금 요청을 받아들여 우티에칭 비서장이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한국 총영사인 류위완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王世杰, 「王世杰呈蔣中正資助李承晩及對我在聯合國商討朝鮮問題經辦情形」(1947.12.19), 김영신 편역,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선인, 2012, 362쪽. 그런데 이승만에게 자금을 전달하라고 한 이 문서의 지시와는 다르게 이 돈이 김구에게 전달되었다는 인터뷰가 있다. 1996년 선우진(鮮于鎭)은 인터뷰에서 김구가 10만 달러를 이승만에게 제공하였고, 이승만은 프란체스카와 함께 류위완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그 후 10만 달러를 류위완을 통해 김신(金信)이 찾아왔고, 한미호텔과 경교장 등의 생활비와 『백범일지』출간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정병준, 「1945~47년 우익진영의 '愛國金'과 李承晩의 정치자금 운용」, 『한국사연구』 109, 2000. 6, 217쪽.

결국 이승만이 1946년 초부터 장제스에게 요청하였던 정치자금  
은 1947년 말에야 전달되었다. 이승만의 중국 방문 이후 국민당정  
부는 그동안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과 다  
른 선택을 하였다. 국민당정부 안에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정계의 현실 속에서 이승만은 점차 힘을  
강화하고 있었다. 국민당정부도 이러한 한국의 정세변화를 인정하  
고 이승만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월 중국외교부는 장제스에게 한국에서 김구가 남한 단  
독선거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김구가 남한 단독으  
로 조직한 정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 이는 이승만의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고 남북이 통일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김규식·안재홍·장건상 등의 주장과 일치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외교부는 김구와 김규식이 단독선거를 반대  
하는 이유로 북한이 단독정부를 수립할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되고,  
점령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선거를 시행할 수 없으며, 선거에  
앞서 남북의 영수회담이 우선 거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보고에 의하면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한국민주당의 세력이 워낙 강하여 선거에  
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보고는 만일 김구 등이 선거 전에 한 당이 독식하지 않겠다는  
이승만 등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다면,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주한성 총영사 류위완에게 김구와 이승  
만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sup>89)</sup>

국민당정부는 1947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국민당정부는  
김구가 남한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승만과 정반대의

89) 外交部, 「外交部呈蔣中正已飾劉馭萬極力流通調解金九反對南韓舉行選舉事」,  
(1948. 4. 12), 『장중정총통당안 중 한국관련자료 집역』, 364쪽.

노선을 가게 되자 한국주재 중국총영사에게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 중재를 지시하였다. 물론 국민당정부의 시도와는 상관없이 김구와 이승만은 다른 정치노선을 걸어갔다.

## 5. 맺음말

중국 국민당정부는 중일전쟁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였으나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 승인문제에서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과 보조를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카이로회담 이후 1944년 9월 미국과 영국에서 전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국민당정부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 한반도를 국제적으로 공동관리하거나 고문관을 파견하여 통치하거나 즉각 독립시키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의 장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영국 등과 함께 중국군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친중정부를 구성하려 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친중적인 독립국으로 성장하여 일본의 권토중래를 막고 소련이 한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장제스는 한국을 국제사회가 공동관리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1945년 8월 14일 국민당정부와 소련간에 중소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이 세웠던 한반도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다.

1945년 광복 직후 중국국민당은 한국에 대한 구상은 미국이

추진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에 의한 공동관리였다. 광복 후에도 국민당정부의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지원하여 한국정부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광복 후에도 중국 국민당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이 지원 속에는 한국의 독립과 정부 수립에 대한 정치적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경비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에도 역시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소군정기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중국이 기대하였던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저하되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중국국민당정부의 영향력도 갈수록 축소되었다. 1947년 4월 이승만의 중국 방문 이후 국민당정부는 이승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국민당정부의 태도변화는 한국 정계에서 이승만이 가진 영향력을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당정부는 1948년 4월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김구와 찬성하는 이승만 사이에서 한국주재 총영사를 통하여 중재를 시도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전후 한국에 친중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국민당정부의 계획은 미·소군정과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하여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전환하였다. 광복후 미·소 군정기 한국에서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의 입지가 약화되어 가던 그 시기에 중국국민당정부도 공산당과의 국공내전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중국대륙에서 몰락하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5.7.15,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한중관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반도 구상, 중국국민당, 장제스(장개석), 김구, 이승만

<ABSTRACT>

## The Chinese National Party Government's Scheme of Korean Peninsula and Korea Before and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Kim Ji-hoon

In September 1944, the Chinese National Party (CNP) government, led by its Foreign Affairs Department, began the serious discussion of Korea's problems. They review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measures, including the joint international management of Korean Peninsula, sending advisors to Korea to govern the country, and an immediate provision of independence to Korea. As a result, the CNP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U.S., U.K., etc., planned to send Chinese troops to Korean Peninsula to govern the country under military control, and to establish a pro-China government led by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operating in Chongqing.

China intended to let Korea become a pro-China independent nation so as to stop Japan's readiness to gather strength for the renewed attack, and to prevent Russia from getting involved in Korea. Chiang Kai-shek was passive about the joint international control of Korea, because he was worried that such joint control would hamper China's restoration of sovereignty of northeast region.

Right after 1945 Korea's liberation, CNP's plan for Korea was a joint control of the country by the four countries, the U.S., the U.K., China, and Russia, which scheme was endorsed by the U.S. After Korea's liberation as well, the CNP government, led by its military committee, began the discussion of Korea's problems. The CNP government intended to form the Korean government in supportive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and liberation troops.

After Korea's liberation as well, the CNP government continued to

support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and Kim Gu. This support program included political support for Korea's independence and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economic support.

But amid the political landscape in the U.S. and Russian military political period, the political power influence of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Kim Gu, - which China expected to be strong - gradually declined. Alongside this development, the CNP government influence over Korean Peninsula declined over time. After April 1947 when Rhee Syngman visited the CNP government, the CNP government began economic aid to Rhee Syngman. Such attitude change is considered the result of China highly evaluating Rhee Syngman's influence in Korea's political circles.

Key Words : Korea-China relations,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Scheme of Korean Peninsula, Chinese National Party, Chiang Kai-shek, Kim Gu, Rhee Syngman